

최고 진문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 학

-현대시+현대시+수필-

!HOW & WH?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아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악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C]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D]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E]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악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악새」-

*악새: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밭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 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겅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옅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

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김기림, 「주을온천행」-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검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HOW & WH?

해결 방법 법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 학

-현대시+현대시+수필-

“

”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루어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

[27~31] 현대시+현대시+수필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악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루어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
- ⑤ [E] : 날아가는 악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루어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 그러므로 선택지의 '대비'와는 관계가 없음. 해석의 기준이 되는 <보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

왜 정답일까?

1. <보기>를 통한 해석의 기준 찾기

<보기>의 핵심!

자연과 인간이 어루어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2. <보기>를 통한 지문 분석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악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연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①번 선택지: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린
땀땀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②번 선택지: 득음을 하고자 했던 소리꾼의 비애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경탄적 어조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과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③번 선택지: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정서 표현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④번 선택지: 현실 공간과 결부
저 악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⑤번 선택지: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 조화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악새」

정답: ⑤

“ 자연은 긍정 // 인간 & 속세는 부정 ”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심은 만물 빛에 붉게 두렵게 물든 것은 절경의 성장, 그것을 선을 두는 존재보다도 더 푸른 하늘 빛 천사가 울리고 한 형제의 등불우리 위에 가볍게 비면 백발보다도 흰 옷은 가을 조감.’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검소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인간에 대한 반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연은 **긍정적** 속성
인간은 **부정적** 속성] **대비**

그러나, 선택지 ㉠만 다르다

자연은 **부정적** 속성
인간은 **긍정적** 속성

왜 정답일까?

1. <보기>를 통한 해석의 기준 찾기

<보기>를 통한 해석의 기준

수필의 글쓰기 논리

- 1. 자연물과 사물의 속성 서술
- 2. 글쓴이의 체험

인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
삶의 부조리 비판

㉡ ㉢ ㉤ 자연은 긍정 // 인간은 부정

2. <보기>를 통한 지문 분석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검소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돌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티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사람의 부정적 속성 ↔ 자연의 긍정적 속성: 반성·성찰

정답: ㉣

㉡ ㉢ ㉤ 자연은 긍정//인간은 부정) 상반된 내용->정답 ㉣번
㉣ 자연은 부정//인간은 긍정



[문학] 2018년 6월 27~31번 (31번) 보기 문제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 '모든 유물이 꽃들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살하고 서 있지 못할 공간' 전점의 상황 속에서 안살하고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과 연결 분단의 아픔 = 주제 의식

(나) <보기>의 내분과 동일, 득음과 하고자 했던 소리꾼과 우포들의 생명력을 연결

(다) 먼지 낀 의복, 내 몸뚱어리, 먼지 낀 내 마음, 내 몸의 더러움 = 인간의 부정적 삶
오심암, 세심암 = 자연의 긍정적 모습, 반성과 성찰 = 주제 의식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 '민음이 없는 딸과 딸이 마주 향한 향기 어둠속' 갈등과 대립의 허한 현실

(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들의 아름다운 형상화

(다) 자연물의 긍정적 속성과 인간의 부정적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가) 전점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직시, 허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나)(다) 역사적 상황x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화를 강조, 예찬x

(다) '그러나 물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 긍정적 영향 강조를 통한 '오심암'에 대한 예찬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 <보기>에서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직접적 경험 x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 + 우포들의 아름다운 조화롭게 형상화

(다) '오심암'에서 직접적 경험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 천화에 밤별 기묘한 엇보다'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영 :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한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2영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단가'

4영 :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냇의 자리에서 떨어져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것은 이별인가'
->전점과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② (나)는 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오름은, 와서 울음 되어 위장산 술밭을 다 적시고 // 우포를 둔치, 그 눈부신 보빛 위해 자운영 꽃을 질러 놓는다.'
'울음' -> '적시고 꽃을 질러 놓는다' = 칭각 -> 축약 & 시각

③ (가)는 시각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적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각의 흐름 : '시냇'과 관련된 표현이 존재해야 함. (가)는 '지금'만 존재, 그러므로 시각의 흐름 알 수 없음
시적의 이동 : '대상'이 존재해야 함. (나)는 상상적으로 소리꾼과 우포들의 자연을 형상화. 그러므로 시적의 이동이 없음.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 수미상관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물장이나 떠돌던 // 소리꾼이 있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 '요한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전점과 분단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

(나): '오름은 와서 울음 되어 위장산 술밭을 다 적시고 // 우포를 둔치, 그 눈부신 보빛 위해 자운영 꽃을 질러 놓는다'

: 와서 울음소리에서 소리꾼의 절창을 표현, 우포들의 생명력을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

Blank lines for writing answers.



[문학] 2018년 6월 27~31번 (27, 30번) 보기, 공통점 문제

감상 문제를 통해 (가) 해석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하고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

'검은 절경의 성찰, 그것을 섬을 두는 존재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 아름다운 풍경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하나로 이어진 세계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 흠결 없는 세계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 불안한 처한 현실

= 불안한 처한 현실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 자연을 통해 인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여줌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언젠가 한 번 불꽃이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며,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번 겪어보는가'

=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

'살면서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많았나 보아서'를 통해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존재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상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말감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 '망각'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 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우리 민족의 모습
의인
분담으로 인한 불안
전쟁
설의법을 통한 비판
부정적 자세,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
동일성에 대한 염원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 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대비를 통한 분담의 아들 심화
여운(그러나 지금은 분담이구나.)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분담의 현실인 조국, 전쟁 가능성
분담의 아들

언제 한 번은 불꽃이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어보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희세
= 별만 현실로 지내는 것이 최선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 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수미상관

-박봉우, 「휴전선」-



[공부자극] - 박석준 T
"공부하다 잠 깨는 법"